

## 「老子」에 있어서의 言語觀

鄭 在 寬\*

「老子」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의 傳記的 事實이나 原典의 正確한 考證이 必要할 것이다. 그러나 筆者의 노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겠지만, 老子의 原典에 관한 考證도 어렵고, 또 「老子」에 관한 研究物들도 入手되지 않아 國內에서 刊行된 몇권의 번역물들과 日語版에 근거하여 다룰 수밖에 없었음을 먼저 밝혀 둔다. 변명이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老子가 實存의 人物인지 아닌지도 명확하지 않고, 原典도 精確한지 어떤지조차도 究明되어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누구든지 「老子」를 正確하게 다룬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한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老子」는 계속 논의되고 있고, 또 논의될 수 있다. K·야스퍼스가 그의 「大哲學者들」 가운데에서 「老子」를 다루고 있기도 한데, 이는 哲學者로서 다룬 것이고, 筆者는 哲學을 전공한 일도 없으므로 한 국 문학도로서 文學의 면에서 다루어 보고자 할 뿐이다. 가치있는 것만이 살아 남는다. 살아 남는다는 것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에 불과하다. 老子는 그의 생애나 原典의 正確性 與否가 究明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말은 계속적으로 싱싱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를 감동시킨다. 法華經·論語·基督教의 聖經등이 늘 살아 있듯이 「老子」도 함께 살아있다. 살아 있다는 것은 곧 그들의 言語가 살아 있다는 뜻인데, 이러한 言語를 研究한다는 것은 실상 言語學이 아닌가 한다.

解釋學(Hermeneutik)이 「文字的으로 固定된 삶의 표현들을 理解하는 技術學」이라고 딜타이가 그의 「解釋學의 發生」(1900년)에서 말했을 때, E·무크스(Fuchs)도 그의 「해석학」(1958년)에서 「해석학은 神學의 영역에서 信仰의 言語學이다」(Hermeneutik ist im Bereich der Theologie Sprachlehre

\* 馬山初大 教授(國文學專攻)

des Glaubens)라고 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宗教的인 經典들까지도 言語學的으로 다룰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筆者로서는 哲學的 또는 宗教的인 面을 다룰 能力이 없을 뿐 아니라, 筆者의 관심 밖이므로 이런 面들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다만 「老子」를 言語的인 面에서, 그도 더 국한시켜 文學의 측면에서만 취급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老子는 실상 言語의 否定者로서만 취급되었고, 또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文學의 面에서 다룬다고 한다면, 老子는 文學이 言語의 藝術이므로 言語의 肯定者가 된다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筆者는 精神異常者로 취급될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안된다.

실제로 「老子는 언어에 대한 상당히 깊은 이해를 가진 것 같으면서도 역시 言語敵對關係의 경향은 뚜렷하다」<sup>1)</sup>라고 하니까. 그러나 筆者가 보기에는 老子는 文學言語의 原理를 그의 哲學을 통해 論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러한 面을 지적해 보고자 하는 것이 本稿의 目的이 된다.

谷神不死, 是謂玄牝 玄牝之門 是謂天地根……(골짜기의 신은 죽지 않는다. 이를 일러 신비스러운 암컷의 門, 이를 일러 天地의 뿌리라 한다……) (谷神不死章)

여기에서 谷·牝·門·根 등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谷은 골짜기이지만 口字의 위를 덮은 水字를 變形한 것이니까, 이 變形과 口를 합해서 이루어진 글자로서 「水口」가 된다. 谷은 養의 뜻도 있으나, 이는 女性象徴이다. 물이 女性象徴인 것은 周知하는 바와 같고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서는 제 6장 「꿈의 作業」중 「正常的인 사람의 꿈속의 象徴의 문제에 관해서」에서 「골짜기 (valley)는 빈번히 나타나는 꿈 속에서의 女性象徴이다」라고 한다. 牝은 논할 것 없고, 門은 女性, 根은 男性象徴으로 보통 취급되지만, 이 文脈에서는 女性象徴이다. 그런데 이 모두가 谷에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이 「老子」는 물의 哲學이라 할 만한데, 이는 黃沙文明의 한 表現이기도 할 것이다. (政治의 「治」, 「水準」 즉 물로써 尺度를 삼는 것 등) 老子의 물에 의한 비유는 상당히 많다. 人間生命의 本質을 그는 물로써 表現하

1) 李奎浩 : 말의 힘. p. 14 (第一出版社)

고 있는데, 「谷無以盈將恐竭」(昔之得一章)(이후 原文省略), 「道는 홍수와 같아서 좌우 어느쪽으로라도 번져간다」(大道汎兮章), 「최상의 썸은 물과 같다」(上善若水章), 「이 세상에서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으나 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이보다 나은 것이 없는 것은 물의 부드럽고 약함을 이길 것이 없는 까닭」(天下莫柔弱章)등등으로 물에 의한 비유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물에 의한 비유는 人間學(Anthropologie)적인 意味를 가진다. 「天下의 至柔는 天下의 至堅을 마음대로 부리고, 형태가 없는 것은 틀이 없는 데까지 들어간다(下略)」(제43장) 至柔는 물을 가리키는데 물의 無定形性 또는 無規定性을 상징하고 있다. 물의 無定形性, 無規定性은 人間의 人間學의 特性이다. 「우주에서의 人間의 地位」(Die Stellung des Menschen im Kosmos)에서 막스 쉐러가 「인간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요, 生의 금속자이며, 단순한 모든 현실에 반대하는 영원한 항거자」라고 하는 人間學의 特性과 통한다.<sup>2)</sup> 막스 쉐러가 말한 것처럼 모든 定義가 실패할 만큼 인간은 다채롭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물의 상징적 의미와 연결된다고 보는 것이다.

道나 德을 어린애에 비유한 것은 10장·20장·28장·49장·55장 등등으로 많고 女性의 부드러움에도 비유한 것이 많은데, 6장·10장·52장·61장 등으로 나타나 있다. 물의 無定形性, 女性 또는 母性的의 유연성, 어린애의 無規定性등은 실상 같은 이미지로서 연결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人間學의 特性은 文學의 言語로 연결되는데, 이점은 위에서 밝혀질 것이다. 이점을 밝히기 위해 우선 「老子」에서는 言語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살펴 보도록 하자. 老子는 1장에서부터 「道를 道라고 하는 것은 常道가 아니다. 이름(名)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常名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름없는 것(無名)은 天地의 비릇됨이며, 이름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이다. 그러므로 항상 無欲으로써 그 차이(微)를 본다. 이 兩者는 같은 데에서 나왔으나 이름만 다르므로 함께 幽玄한 것이라 한다. 이 幽玄하고 또 幽玄한 것은 모든 妙함이 나오는 門이라 한다」라고 시작한다.

2) 막스 쉐러는 자살할 수 있는 존재라고까지 하는데, 이는 人間이 자신을 대상화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즉 자기로부터 늘 벗어나서 새롭게 변모될 수 있는 것이다. 니체가 말한 것처럼 人間은 결코 固定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흔히 老子가 言語를 否定한 것이라 해석해 왔다. 그러나 이는 言語自體의 否定이 아니다. 왜냐하면, 소위 道德經이라는 五千言을 남긴 이유가 言語自體의 否定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道德經에 남기는 말이야말로 진정한 言語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남긴 것이라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가 否定하려 한 것은 보다 거짓된 言語였던 것이고, 言語自體가 아니었다. 言語自體가 否定될 때, 老子가 진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또는 없었는지조차도 우리는 모를 것이다.

人間의 이해는 이름과 수를 이용하여 세계를 지배하는 힘을 획득한다. 한 수학의 기호와와 한 언어의 문법은 요컨대 동일구조이다. 논리학은 언제나 일종의 수학과이고, 수학도 역시 일종의 논리학이다. 따라서 수학적인 수와 관계있는 인간이해의 모든 행위—측정하는, 헤아리는, 스케치하는, 저울질하는, 배열하는, 나누는 것—에는 확대된 것을 言語로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다.<sup>3)</sup>

言語 以前의 세계는 虛無 그 자체이고 어둠이라는 말이다.

말에 의해서 표현된 것만이 현상들의 꿈같은 흐름 속에서 드러나 스스로를 나타낸다. 말은 마술이다. 이름으로 불리워진 사물이 갑자기 존재하게 된다. 이름없이 존재하고, 이름없이 일어나는 것은 끝없는 흐름 속에 몽롱하게 사라진다.<sup>4)</sup>

뿐만아니라 헤르데르도 言語를 「理性的 標識記號」라고 하면서 「모든 感官들에 의해서 넘쳐 흐르는 知覺들의 大海 속에서 人間의 영혼은 하나의 파도를 구분해서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그것을 주의한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시펄글러, 야스퍼스, 헤르데르 등이 말하고 있는 공통점은 言語 以前의 世界가 無 또는 虛無 그 자체임을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老子도 無名은 天地의 비릇됨 즉 根源이라고 하면서도 有名은 萬物의 母라고 한다. 물론 이 경우의 名은 言語를 뜻하는데, 無名인 無, 虛無가 言語에 의해서 捕捉되고, 把握됨으로써 구분과 차이가 생기게 되고, 따라서 萬物, 즉 사람, 짐승……등으로 탄생됨을 말한다.

1장에서 內包的인 意味에서의 同意語들을 보면(文章의 構造에서 보면) 그

3) C·시펄글러 西歐의 沒落(朴煥德, 宋東準譯) 第一章, 數의 意味에 대하여(大洋書齋)

4) K·야스퍼스: 言語

것들은 常道·常名·無名·無欲·玄등이다. 이는 言語 以前의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無欲으로써 보게 되는 妙와 有欲으로써 보게 되는 徼는 兩者가 「같은 데서 나왔으나 이름만 다르다」고 하니까, 「그 같은데」란 玄이다. 또 玄은 「모든 妙가 나오는 門」이라고 하니까 言語 以前의 상태인 玄은 동시에 門의 구실도 하고 있다. 그런데, 妙가 나오려면, 이 門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門은 無名등 言語 以前의 세계와 言語의인 表現의 세계를 구분하는 境界線이다. 그렇다면 門은 言語의 기능이다. 즉 言語의 存在의 開明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言語 以前의 상태인 常道·常名·無欲·無名·玄등은 言語 自體를 否定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玄이 門의 구실도 하는 것이므로 言語 發生의 根源임을 말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無名은 天地의 비롯됨」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道を 道하고 하는 것은 道가 아니다」라는 것도 「이름을 이름이라 하는 것은……」도 잘못 말해진 言語를 지적한 것이다.

5장의 多言數窮 不如守中, 8장의 言善信, 27장의 善言無瑕譏, 47장의 不見而名등은 결코 言語의 否定이 아니라, 오히려 肯定이며 言語의 正確한 使用을 말한다. 그러므로 言語 以前의 無나 玄등은 言語가 어둠에 근거해 있거나 어둠 또는 沈默에 맞서 있음을 말한다. 즉,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위해서는 言語가 必要없기 때문이다.

다시 道에 관한 言及에서 言語觀을 살펴보자.

나는 그 이름을 모른다. 자(字)하여 道라 하고, 굳이 이름하여 크다고나 할까 큰 것은 가는 자라 한다. 가는 자는 먼 자라 한다. 이 먼 자는 돌아오는 자라 한다.  
(25장)

道는 그 작용이 멀리 가기도 하고, 또 되돌아오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는 굴자대로의 뜻, 즉 길(道)이다. 가령 길이 a의 地點에서 b의 地點으로 옮겨 주는 기능이라면, 言語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儒敎에서도 朱子가 「道言世」<sup>5)</sup>라 했지만, 言語는 길이다. 現實 속의 불(火)에서 距離를 취하면서 길을 移動해 가면 言語라는 불에 到達한다. 「少女는 장미꽃」이란 메타퍼지만, 人間의 세계에서 植物의 세계로 옮겨가는 길이다. 길은

5) 율곡집 Ⅱ p. 28.

地理上, 物理的 空間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地理上이나 物理的 空間 속의 길은 동물도 다닐 수 있는 길이지만, 人間만의 길은 하나의 상황이나 상태에서 다른 상황이나 상태로 옮겨감으로써 變身을 통해 새로 태어나기도 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낡은 생명을 벗고,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상태를 향해서 다시 태어남으로써 늘 싱싱한 삶을 향해가는 길은 人間만의 길이다.

이런 삶의 原理를 文學의 言語가 실현해 준다. 言語의 기능을 表示와 含蓄으로 나눈다고 할 때, 表示는 言語의 辭典的 意味, 含蓄은 그 言語가 풍기는 분위기, 暗示力, 聯想, 象徵的 意味, 또는 그 言語의 多義性등을 말한다. 表示的 意味는 日常生活에서 서로 오해없이 정확한 意思疏通을 위해 사용되고, 科學用語에도 해당된다. 그러나 含蓄的 意味는 文學語이다.

회색 1천원권이 시간적·공간적으로 결코 변동될 수 없는 가치로 나와 너의 상호간에 통용되듯이 表示的 意味의 日常語의 내용도 같은 구실을 한다. 그것은 기계와 같다. 이 기계와 같은 言語의 의미내용에 고장, 즉 변동이 생기면, 상호간에 오해가 일어나고, 사회생활은 혼란된다. 이를 막기 위해 日常語는 더욱 硬化된다.

이러한 日常語의 性格은 감정대립이나 言語의 경우, 사용되는 言語가 상대방을 포로로 만들려는 죄사슬 구실을 하거나 잡아 가두려는 감옥의 구실을 한다. 「사기꾼!」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사람의 경우는 이 사람의 지극히 다양한 삶 가운데서 극히 작은 一面만을 도려내어 못박은 것이다. 그는 남편, 아버지, 친구, 직장동료, 형이나 아우, 오빠나 남동생, 삼촌동등의 지극히 다양한 삶을 갖고 있음에도 「사기꾼」이란 言語를 던짐으로써 그 지극히 다양한 삶을 모조리 칼로 잘라내듯 베어 버리고, 사기꾼이라는 의미 영역의 감옥에 감금시킨 것이다. 人間의 삶은 大海의 무수한 파도와 같다. 그 파도의 모습들은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肉眼에 비치는 一面만을 보고, 사기꾼이라는 言語의 감옥에 가둔다. 그 무엇으로도 규정되어 질 수 없는 무수한 파도 가운데 하나를 붙잡아 사기꾼으로 못박아 버린다. 소위 「教育者가 그럴 수 있느냐?」라든가, 「학생으로서 그런 짓을 하다니!」라고 했을 때, 교육자 또는 학생이라는 言語의 意味領域으로 그들의 多樣性에도 불구하고, 칼로 베듯 잘라내고, 「가르친다」는 한 面, 「배운다」는 한 面

만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面 이외의 삶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인 양, 꼼짝도 못하게 감금한다. 이런 무서운 폭력이다. 이 감옥은 現實 속의 감옥보다도 더 무서운 감옥이다.

그러나 文學의 言語는 이 감옥과 같은 日常語의 意味領域, 즉 表示的 意味의 장벽을 파괴하고, 그 鐵壁같은 한계를 허물어 버림으로써 갇혀 있는 감옥으로부터 人間을 解放시켜 自由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人間生命의 本質인 無規定性, 또는 無定形性이라는 多樣한 삶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文學은 言語를 否定하고 파괴한다. 아니, 言語의 否定이나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력으로 가득찬 言語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道 즉 길이다. 「老子」나 「莊子」에 나타나는 이 否定의 精神은 지금까지 흔히 言語에 대한 否定인 것으로 해석되어 왔지만, 그들의 雄辯을 어찌 言語 自體의 否定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老子」에 나타나 있는 이와같은 言語의 否定에 관한 面은 사실상 文學言語의 原理를 잘 규명해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東洋文學의 作品들 속에는 이러한 정신이 늘 즐거움을 이루며 흐르고 있고, 「老子」나 「莊子」가 자주 引用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理由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老子는 「만물의 날카롭게 모난 것을 부수며, 그 엉클어진 것을 풀고 그 빛을 부드럽게 하며, 티끌과 같이 한다」(4장)라고 하는 것이다. 모나고, 엉클어진 것은 구속된 상태이며, 한정되고 굳어진 것이다. 「그 빛을 부드럽게 함」(和其光)도 빛(光)이 뛰어나고, 날카롭고, 극단인 것임을 안다면 그것이야말로 한 편으로만 치우쳐 限定된 구속이 아닌가. 여기에서 우리가 구속에서 벗어나 해방되는 自由의 意味를 얻을 수 있다면 되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人間의 人間學의 特性도 非專門性, 즉 人間生物學(Humanbiologie)의으로도 육식동물이 태어날 때부터 육식만 할 수 있게 이빨이 결정되어 있다든가, 초식동물 역시 초식밖에 되지 않는 固定性 등에서 人間만은 육식이나 초식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이다.<sup>6)</sup>

6) A·포트만이나 헤스펠을 참고하면 충분하다. 人間은 生息地가 없으나 動物들은 固定된 生息地가 있어 만약에 생활조건이 변화—기후의 변화로 먹이의 공급원이 고갈되든지, 새로운 적들이 나타난다든지의 변화—가 나타나면 그 변화에 대피할 수 없다. 人間은 어떠한 경우에도 脫現實化할 수 있는 적응능력이 있어 固定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나야말로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나는 無知하다, 俗人들은 명백한 소견을 가지고 있다. 나만 혼자 어둡다. 俗人들은 영리하지만, 나만 혼자 요령이 없다. 나는 출렁이는 바다와 같고, 멈출 줄을 모르는 바람과 같다. (20장)

「출렁이는 바다」나 「멈출 줄을 모르는 바람」등에서 보듯이 결코 규정되어 구속당하려 하지 않는 自由와 해방의 정신을 볼 수 있다면 족할 것이다.

실제로 生命의 原理란 「사람의 삶은 부드럽고 약하나 죽으면 굳고 강하다」라든가, 「그러므로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며,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이상 76장)라는 것이다. 살아 있는 生命의 動的인 이미지와 죽음의 固定된 靜的인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수레바퀴의 구조는 서른 개의 바퀴살이 한 개의 속바퀴에 모여 있으나 그 속바퀴 구멍(無) 속에서 바퀴가 회전하는 작용이 일어난다. 찰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드는 경우에도 그 빈 곳(無)이 그릇으로의 구실을 한다. 문이나 창을 내고 방을 만드는 경우에도 그 비어 있는 부분이 방으로서 이용된다. 그러므로 有가 어떤 구실을 하는 것은 無가 작용하는 까닭이다. (11장)

이 章은 얼핏 보기에 形態心理學에서의 그림—보기에 따라서는 마주 보고 있는 두 얼굴 같기도 하고, 다시 보면 그 두 얼굴 사이의 빈 공간은 꽃병같이 보이기도 하는—을 연상시킨다. 두 얼굴을 有라고 할 때, 두 얼굴 사이의 빈 공간은 無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그 두 얼굴 사이의 빈공간인 無가 없이는 두 얼굴의 형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반대로 두 얼굴 사이의 빈 공간인 꽃병처럼 된 형태를 有로 보면 두 얼굴의 형태는 無가 된다. 그러나 이 경우, 마주 보고 있는 얼굴과 같은 형태인 無가 없다면 꽃병의 형태인 有는 이루어질 수 없다.

「老子」의 11장은 바로 形態心理學 그것이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形態心理學과 共通點을 가진다고는 할 수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부분이 모여서 全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부분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形態心理學인데, 老子는 어느 한 쪽의 面만을 보는 편견을 거부하고, 全體를 보는 巨視的 眼目을 가져야 함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有와 無의 어느 한편만이 가치로서 받아들여질 수 없고, 相補的인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老子는 높은 곳에서 有와 無 兩便을 함께 내려다보



고 앉아 있는 것이다. 그는 有와 無의 中間地帶에 位置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老子」의 11장은 文學에서는 어떤 意味를 가지는가? 쉬운 例를 들자. 柳致環의 「깃발」중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에서 순정은 이 地球上의 人間들이 가지고 있는 心理의 一面을 하나로 抽象化시킨 것이다. 실제로 순정은 이 地球上에 하나의 순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人口數만큼 많은, 그리고 多樣한 순정이 있다. 그런데 수많은 그 순정들을 추상화시킨 「순정」이라는 하나의 감옥 속에 가두어 버린 것이다. 이것이 抽象語 「순정」이다. 순정은 물결같은 순정, 불길같은 순정, 초목빛같은 순정등등 多樣하고 많다. 抽象語 「순정」에 묶여 있는 다양한 순정들을 해방시켜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감옥인 抽象語 「순정」을 否定化 또는 無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否定 또는 無化를 통해야만 有인 새로운 순정이 해방되어 탄생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無는 有가 탄생되는 「門」인 것이다. 「순정은 물결같이」에서 순정을 否定하는 無의 역할 또는 작용 없이는 「물결」이라고 하는 有도 意味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순정은 물결」에서 無와 有가 함께 共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어느 한 쪽만 인정해서는 有나 無는 의미가 없고 이 둘을 함께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老子」의 言語 否定을 마치 言語 自體의 否定인양 착각하고 있다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견해이고, 정확하게 살피지 않은 결과라고 할 것이다. 老子는 결코 言語 自體를 否定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言語를 극히 소중하게 생각했고 言語의 바로고 정확한 사용을 주장한 것이다. 「老子」는 결코 一方의인 思想이나 思考를 원하지 않았다. 「老子」에서 無의 否定的인 面만을 보고, 無의 肯定的인 面을 읽지 못한다면 「老子」는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믿음 있는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믿음이 없다. 착한 자는 말에 능하지 않고, 말에 능한 사람은 착하지 않다」(81장)라는 말이나, 「바른 말은 얼핏 보기에 반대인 것처럼 생각된다」(78장)등이 어째서 言語를 否定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는지 도저히 筆者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老子는 「믿음 있는 말」, 「능하지는 않으나 착한 말」, 「바른 말」등을 계속 「老子」 속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하여 老子는 言語를 正確하게, 즉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道の 不變性은 이름을 붙일 수 없다. 다듬지 않은(아직 손대지 않은) 나무동결은 비록 작더라도 天下의 누구든 그것을 도구로서 부릴 수가 없다. 계왕이 이런 道를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이 장차 스스로 그를 찾을 것이요, 天地가 서로 화합하여 단 이슬을 내릴 것이며, 백성은 명령하지 않아도 절로 고르게 다스려질 것이다. 처음 人工의으로 만들게 됨으로써 이름이 생기고, 이름이 또한 이미 생겼다면, 그것 또한 장차 멈출 줄(한계를 만들 줄) 알아야 한다. 이 멈출 줄을 안다는 것이 위태롭게 되지 않는 所以이다. (32장)

道는 固定되어 있지 않은 動的인 것이므로, 한계를 만들어 固定시키는 言語로서 사로잡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대로 둔다면 그것은 곧 混沌이고 虛無일 뿐이다. 그러므로 言語인 이름을 붙임으로써 비로소 질서가 잡히고 事物은 存在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탄생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감옥과 같은 곳에 가두어 버리는 위태로움을 가져오기 쉬우므로 그것을 적절하게 멈출 수 있도록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知止所以不殆야말로 道이며, 言語의 올바른 사용인 正言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老子는 言語 自體를 否定한 것이 아니고, 言語의 바른 사용법을 論하고 있다 할 것이다.

文學의 言語는 감옥과 같이 굳어져 버린 日常語의 非生命的인 世界를 끊임없이 拒否하고, 이 拒否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향해서 길(道)을 떠나야만 하는 그리하여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나누려는 生命의 깃발이다.

그러므로, 詩人은 이 깃발을 지키는 마지막 戰士이다. 그 싸움은 政治의이나 武力에 의한 革命의 싸움도 결코 아닌 人間의 가장 根源的인 生命의 本質을 지키는 싸움이며, 言語에 의한 싸움이다.

제한된 原稿의 枚數 때문에 論理的인 비약도 많았고, 無理가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筆者가 밝히려 한 점이 老子는 결코 言語 自體의 否定者가 아니며 오히려 言語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道인 生命의 本質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이나마 드러날 수 있다면 큰 다행으로 여길 뿐이다. 앞으로 상세히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다룰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 본다.